쉬면 청정법신, 쉬지 못하면 육도윤회



지안 스님의 임제록 강설

㊺ 보리수(菩提樹)와 무명수(無明樹)

"대덕들이여, 사대(四大)로 이루어진 색신(色身)은 무상한 것이니라. 지라, 위, 간, 쓸개와 머리카락, 털, 손톱, 이빨 따위도 오직 모든 법이 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니라. 그대들의 한 생각 마음이 쉬어진 곳을 보리수(菩提樹)라 하는 것이고, 한 생각 마음이 쉬지 못한 곳을 무명수(無明樹)라 하는 것이니라. 무명은 머무는 곳이 없고, 무명은 시작도 끝도 없는 것이니라. 그대들이 만약 생각 생각 마음이 쉬어지지 못하면 문득 무명수 위에 올라가 4생6도에 들어가서 털 나고 뿔 달린 축생이 되고 말 것이니라. 그대들이 만약 쉬어버린다면 그대로 청정법신의 세계니라. 그대들이 만약 한 생각도 나지 않는다면 바로 보리수에 올라가 삼계에 신통을 변화시켜 마음대로 화신의 몸을 나타내어 법희선열(法喜禪悅)을 누릴 것이며, 몸의 광명이 저절로 빛날 것이니라. 옷을 생각하면 비단옷이 천 겹으로 걸쳐지고, 밥을 생각하면 온갖 맛이 다 갖춰져 차려지며, 다시는 횡액병사하는 일도 없을 것이니라. 보리는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얻는 자도 없느니라. 여러분, 대장부가 다시 무엇을 의심하는가? 눈앞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 누구인가? 잡아 쓰면 그만이니 이름 붙일 수 없는 것을 그윽한 지취(玄旨)라 하느니라. 이렇게 보아버리면 더 이상 꺼려할 법이 없느니라."

옛사람이 말했다.

"心隨萬境轉 마음은 만 가지 경계를 따라 움직이니 / 轉處實能幽 움직이는 경계가 실로 그윽하여라 / 隨流認得性 작용하는 곳을 따라 성품을 알고 나니 / 無喜亦無憂 기뻐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도다."

불교의 수행을 '무상(無常)을 뛰어넘어 영원으로 가는 것'이란 수사적(修辭的)인 표현을 하기도 한다. 열반의 네 가지 덕(德)을 상(常), 낙(樂), 아(我), 정(淨)이라고 말하니 상(常)이 무상(無常)의 반대 영원이다. 임제는 무상한 것에 집착하는 마음을 쉬라고 한다. 마음이 쉬어진 것을 보리수(菩提樹)라 하고 마음이 쉬어지지 못한 것을 무명수(無明樹)라 한다 하였다. 마음이 쉬는 것을 식심(息心)이라 한다. 〈치문(緇門)〉에 수록된 망명(亡名)법사의 '식심명(息心銘)'에 생각이 많거나 아는 것이 많으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 "아는 것이 많으면 일이 많으니 뜻을 쉬는 것만 못하고, 생각이 많으면 잃는 것이 많으니 하나를 지키는 것만 못하다(多知多事 不如息意 多慮多失 不如守一)"고 하였다. 사람의 마음에 도(道)가 자리하려면 생각이 쉬어지는 것이 필수란 말이다. 심지어 지적(知的)인 활동마저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이 며칠인지 내 알 바 아니로되 봄이 왔는지 산천이 푸르구나(年代甲子總不知 春來依舊草自靑)"는 송구가 있다. 마음이 쉬어진 경지를 나타내는 말로 이는 곧 선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쉬면 청정법신의 세계가 되고 쉬지 못하면 육도윤회의 세계가 된다 하면서 오계(悟界)와 미계(迷界)를 쉬고 쉬지 못함으로 구분하였다.

왜 이처럼 식심(息心)을 중요시 여겨 강조하고 있는가. 깨달음(覺)에는 망념이 없기 때문이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무명의 바람 때문인 것이, 바다나 호수에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는 것과 같다고 한다. 〈대승기신론〉에 "마음의 바탕에 망념이 떠나간 것이 깨달음(所言覺者 心體離念)"이라 하였다. 헛된 생각에 움직이지 않는 것이 본래의 마음이라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도심(道心)이다. 그러나 도(道) 곧 보리는 있는 데가 없어 얻을 수가 없다 하였다. 마음이 쉬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사구게의 송(頌)은 서천 22조 마라나존자의 게송이다. 제자 학륵나에게 전해준 전법게(傳法偈)이자 자신의 열반송(涅槃頌)이다. 〈선문촬요(禪門撮要)〉에는 학륵나에게 학(鶴)들이 따라다녔는데 그 이유를 마라나에게 묻자 학륵나가 옛적에 용궁에 있을 때의 제자들이었는데 복이 얕고 덕이 적어 우족(羽族)에 떨어졌다 하자 학륵나가 어떻게 하면 학들을 해탈시킬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설해준 게송이다. 이 게송을 설해주자 학들이 떠나가고 마라나존자는 바로 좌탈(坐脫)하였다고 한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스승 청공이 제자 백운에게…



세상 속 경전읽기

㊺ 석옥 청공(石屋 淸珙)의 사세송(辭世頌)

원(元)의 석옥 청공(石屋 淸珙, 1272~1352)은 임제종 양기파(楊岐派)로, 임제(臨濟)의 19세 법손이다. 20세에 소주 숭복사(崇福寺)에 출가하여 고봉 원묘(高峰 原妙, 1238~1295)에게 배우고, 후에 급암 종신(及庵 宗信)에게 사사(師事)하여 그의 법을 이어받았다. 절강성 당호의 복원선찰(福源禪刹)의 주지로 7년 동안 머물다가 절강성 호주 하무산 천호암에 주석하였다. 고려의 태고 보우(太古 普愚, 1301~1382)가 1346년에 중국에 들어가 1347년에 천호암에서 그의 인가(印可)를 받고 가사를 전해 받아 고려 임제종의 적통(嫡統)을 이었다. 백운 경한(白雲 景閑, 1299~1374)도 1351년에 천호암의 석옥 청공에게 법을 묻고, 다시 인도 선승인 지공(指空, ?~1363)에게 사사 후 1352년에 귀국하였다. 천호암에서 청공을 만났을 때 〈불조직지심체요절(佛祖直指心體要節)〉 1권을 받아왔다.

〈백운화상어록(白雲和尙語錄)〉에 의하면, 1354년 6월 4일에 석옥 청공의 제자 법안(法眼)이 하무산에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와 (석옥화상의) 편지 한 통을 건네주었다. 백운이 무릎을 꿇고 받아서 펼쳐 살펴보니, 스승인 석옥 노화상 열반 때의 사세송[辭世頌, 세상과 작별하며 지은 게송]이었다. 그 게송은 다음과 같다.

"백운을 모두 사서 청풍을 팔았더니
온 집안 텅 비어 뼛속 사무치게 가난하다. / 마침 한 칸의 초가집이 남아 있어 / (떠나는) 그 자리에 이르러 병정동자에게 부탁하노라."

[白雲買了賣淸風, 散盡家私澈骨窮. 留得一間茅草屋, 臨行付與丙丁童]"

〈白雲和尙語錄(HBJ 6.637a-668c) 卷下〉

석옥이 제자를 시켜 사세송을 바다 건너 백운에게 직접 전한 것으로 보아, 백운을 무척 아끼고 법제자로 여겼던 것 같다.

이 게송에서 백운(白雲)은 중의법(重義法)으로, 백운 선사를 뜻하기도 하고, 흰 구름(백운)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여기저기 떠도는 속성이 있으니, 생을 마치고 떠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백운을 샀다는 것은 백운 경한을 법제자로 삼았다는 것이기도 하고, 금생(今生)을 마치고 백운(흰 구름)처럼 훌훌 떠난다는 것이기도 하다.

청풍은 백세청풍의 뜻으로 맑게 산 일생이니, 청풍을 팔았다는 것은 맑게 산 금생(今生)을 마감한다는 것이다. 다르게는 석옥의 맑은 법을 백운에게 전수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뼛속 사무치게 가난하다[徹骨窮]'는 것은, 이미 번뇌가 다[漏盡]해 남은 번뇌가 없음[無有有餘煩惱]을 뜻한다. 석옥의 공부가 완숙하다는 표현이다.

'한 칸의 초가집[一間茅草屋]'은 중의법으로, 한 평생 의지해 온, 허깨비 같이 허물어져 가는 육신[肉身, 곧 벗어던질 옷]을 뜻하기도 하고, 부처님의 혜명(慧命) 곧 지혜광명(智慧光明)을 밝힌 석옥의 법(法)을 뜻하기도 한다.

'그 자리에 이르러 병정동자에게 부탁하노라.[臨行付與丙丁童]'에서 임행(臨行)은 임종(臨終)과 동의어이다. 병정(丙丁)은 오행(五行)에서 화(火)이니, 병정동자(丙丁童子)는 등롱(燈籠)에 불을 붙이는 임무를 맡은 아이[使喚]를 의미한다. 이는 역시 중의법으로, 벗은 옷[肉身]을 다비[茶毘; 육신을 본디 이루어진 곳으로 돌려보냄]하겠다는 뜻이기도 하고, 부처님의 지혜광명(智慧光明)을 이은 석옥의 법을 백운화상에게 전등(傳燈)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병정동자의 뜻을 더 명확히 알려면, 〈벽암록(碧岩錄)〉 제7칙의 평창(評唱)에 나오는 '병정동자래구화[丙丁童子來求火, 불이 불을 구함, 곧 부처가 다시 부처를 구함]'의 선화(禪話)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

〈배광식 서울대 치의대학원 명예교수〉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㊾ 깨침의 길 6

'보살'의 뜻 알고 써야

"미륵보살과 미륵불은 같은 분인가요, 다른 분인가요?"

언젠가 한 불자로부터 받은 질문이다. 미륵이란 이름은 동일한데, 뒤에 붙는 호칭이 다르다 보니 같은 분인지, 아니면 다른 분이지 궁금했던 것 같다. 결론은 간단하다. 미륵보살이 수행을 완성하여 성불하면 미륵불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살은 깨친 붓다가 되기 이전의 수행자를 가리킨다. 현재 미륵은 도솔천에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미륵보살이라고 한다. 이 보살이 56억 7천 만 년 후에 이 땅에 내려와 성불한 후, 즉 미륵불이 되어 모든 중생들을 구제한다는 것이 미륵신앙의 요체다.

보살이란 본래 보리살타(菩提薩陀, Bodhisattva)를 줄여 쓴 것인데, 이 용어는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나면서 역사에 등장하였다. 당시 사람들은 붓다가 깨침을 이루고 위대한 성자의 삶을 산 것은 6년간의 고행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아주 오랜 겁(劫)의 시간 동안 윤회를 반복하면서 열심히 수행 정진해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기초로 찬불승(讚佛乘)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붓다의 전생담(前生譚)인 자타카(Jataka)다. 그들은 전생담을 활용하여 붓다의 사리를 모신 탑(塔)을 찾는 순례객들에게 위대한 스승의 생애를 설명해주었다. 보살이란 바로 전생담에 등장하는 붓다의 모습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즉, 깨치겠다는 발심(發心)을 하고 수행하는 전생의 석가모니 붓다가 보살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보살은 석가모니에게만 적용되는 용어였다. 전생담에는 석가보살이 임금이나 사문, 토끼 등 수많은 모습으로 등장한다. 그가 전생에 무구광(無垢光) 보살이란 이름으로 수행하고 있을 때, 연등불(燃燈佛)께 정성껏 공양을 올리고 수기(授記)를 받는다. 수기란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는 예언이자 일종의 보증수표라고 할 수 있다. 연등불은 무구광 보살에게 앞으로 백 겁 후에 성불할 것이며, 이름은 석가모니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그 수기보살이 2600여 년 전 인도에서 태어나 깨달음을 얻고 석가모니불이 된 것이다.

그런데 대승불교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보살의 의미가 변하기 시작하였다. 즉, 보살은 석가모니 전생의 모습이 아니라 대승의 이상적인 인간상을 가리키는 용어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깨침을 향한 마음을 내고(發心) 이를 바탕으로 원(願)을 세우며 6바라밀 즉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등의 수행(行)을 하는 삶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였다. 보살이란 바로 이런 마음을 내고 실천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가 되었다. 이를 범부보살이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보살은 남성과 여성, 출가와 재가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용되었다. 이런 마음으로 출가를 하면 비구 보살, 비구니 보살이 되며, 재가자라면 우바새 보살, 우바이 보살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살은 대승불교의 이상상(理想像)이 되었다.

대승에서는 관음, 대세지, 지장 등 수많은 보살이 등장한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그들의 시선이 깨친 붓다가 아니라 진흙 밭에서 허덕이고 있는 중생들에게 닿아있다는 점이다. 대승의 보살들은 성불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옥중생이 모두 성불할 때까지 자신은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는 지장보살의 서원은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지장보살을 가리켜 원이 가장 큰 대원본존(大願本尊)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불교의 지향점이 대 사회적 실천인 자비행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깨친 붓다와 성불하지 않으려는 보살의 존재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보살은 석가보살, 수기보살을 거쳐 대승의 이상적인 인간상이 되었다. 요즘은 점집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처녀보살', '애기보살' 등으로 차용하고 있는데, 그리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다. 이 용어가 오용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적어도 보살이란 용어를 사용하려면 이 말에 담긴 의미 정도는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 안에 담긴 중생들을 구원하겠다는 서원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자신을 찾는 사람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어루만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이 나만의 바람은 아닐 것이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복성암
• 주 지 : 보문심
• 주 소 : 전북 장수군 장수읍 승마로 65-4(노하리)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현대불교신문
구독안내

02-2004-8200

신문을 구독하시면 생활안내 · 불자정보
(사찰, 포교당 양도및 기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불교의 현대화 —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kakao Ch 카카오톡 채널에서 현대불교신문을 검색하세요!
NAVER 검색창에 현대불교신문 을 쳐보세요

겨울철 난방(煖房) 걱정 끝!

바닥철거 없이 시공가능
난방비 50% 절감
21세기 신 난방 문화의 대변혁 : 법당, 요사채, 선방, 공양간 등

◆ 시공실적 ◆
해인사 백련암, 미황사(해남), 대흥사(단양), 용담사(안동), 연꽃마을(용인요양원), 전국 캠핑장 킴핑트레일러(경인 아라뱃길, 가평 자라섬), 대부도 캠핑장, 성동힐링센터(동강) 등

이동식 주택형 찜질방 제작판매(2인, 4인, 6인용)
정원난방산업 www.garden-heating.com
"정직한 시공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010-3267-1263

침향 향기나는 초
침향초

- 대중이 모일때 가장 적합한 초 -

침향은 예로부터 향료로 피워 극히 귀한 기운을 갖는다고 전해집니다. 침향을 피워 향기를 맡게 되면 정신이 맑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법당, 집, 사무실, 기도처 등 다양한 곳에서 침향의 향기와 함께하세요.



식물성 침향초 / 연꽃칠성촛대 / 연꽃촛대



밀납PC컵초 크리스탈받침(별도판매) / 연잎초찻잔, 연꽃초찻잔 Set

양초 보시 대행

해광산업 031-333-0242 · 010-5848-0189